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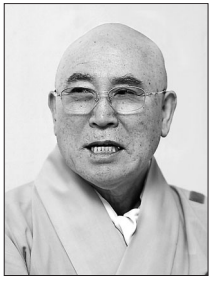
종단 원로의 아름다운 회향

종하 스님, 동행에 꾸준한 기금 전달 '귀감'

총 1억 1565만원 회향

조계종 원로의원 종하 스님(사진, 서울 관음사 주지)은 12월 15일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에 저비나눔 기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원로의원 종하 스님이 그동안 아름다운동행에 기부한 금액은 총 1억1565만6890원에 달한다.

2009년부터 아름다운동행과 인연을 시작한 종하 스님은 그해 3월 아름다운동행에 저비 나눔 사업 기금 1000만원을 전



달하며 동행 출범 이후 첫 번째 기부자가 됐다.

이후 종하 스님은 지난 2010년과 2011년에도 지진 피해로 고통받는 아이티와 일본 구호기

금을, 올해 4월에도 아프리카학교 건립 기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hyunbul.com

토론 문화 정착 100인 대중공사 회향

14일 회향식 개최... 사부대중 250명 참석

조계종이 1년 동안 진행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마무리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12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 전통문화공연장에서 회향식을 개최했다. '대중공사, 이야기 꽃밭이여라'를 주제로 열린 회향식에서는 대중공사 위원들을 비롯해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여 대중들은 9차례 대중공사를 진행한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꽃을 전달하는 '꽃밭 만들기'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또한 9차례 대중공사에 모두 참석해 개근한 위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대중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도움을 준 공주 한국문화연구소, 서울 불광사, BTN불교TV에는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감사의 말을 통해 "지난 1년 간 9차례의 대중공사를 통해 우리의 현실을 여실히 보았다"면서 "한해에 5'씩 매년 개선해 나간다면 5년 후, 10년 20년 후에는 우리가 걸어가는 바로 정면에 종단의 희망과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00인 위원들이 경험을 살려 가정과 직장, 사찰과 단체에서, 그리고 지역에서 대중공사의 꽃을 피워 미래를 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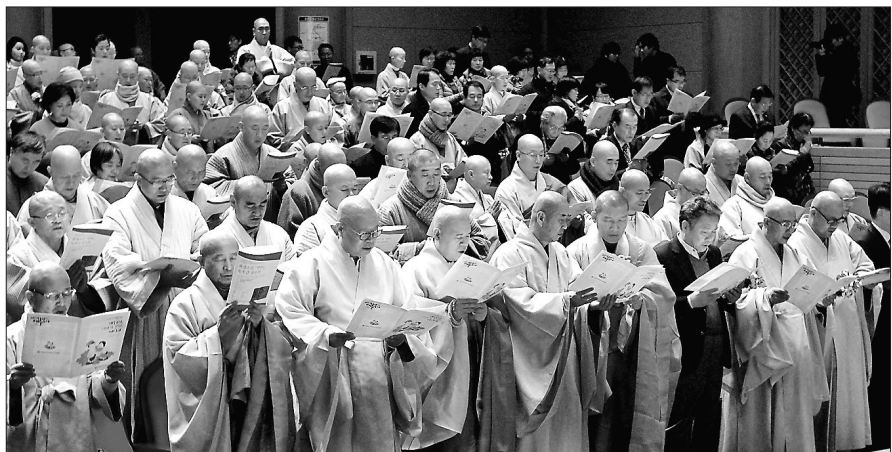
어 가자"면서 "내년에는 대중공사가 전국으로 열기를 더하여 교구분사와 지역에서 또 만개하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참가 위원들의 격려도 이어지기도 했다. 대각회 이사장 혜종 스님은 "1700년 한국 불교 역사에서 사부대중이 모여 대중공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있는 일"이라면서 "대중공사는 불교의 꽃이다. 한국불교의 발전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중공사 공동추진위원장 도법 스님은 내년에도 대중공사가 지속됨을 예고했다. 도법 스님은 "대중공사 평가 설문문을 보니 90% 이상이 대중공사는 지속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면서 "그간 대중공사가 그릇과 도구를 만드는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답길 내용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 아직 세부적 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만과 사만이 원유무애한 한국불교의 방향을 세우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00인 대중공사 회향식에서는 화정위원회가 주최한 화정소설 (발원) 독후감 공모전 시상식이 진행됐으며, 대상 김성준 씨 등 46명에게 상장을 수여했다. 또 청암사에서 제작한 애니메이션 '남한산성의 소리' 시사회도 함께 진행됐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은 12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 전통문화공연장에서 회향식을 개최했다.

갈등·반목 속에도 소통의 씨앗 움터

2015 종단 결산

2015년 한해 동안 종단들은 잇단 범계 의혹과 사건 사고로 몸살을 앓았다. 그런 와중에도 변화와 소통을 위한 시도는 계속 이뤄졌다.

조계종은 제2교구분사 용주사로부터 시작된 범계 의혹부터 동국대 이사장 일면 스님의 문제까지 1년 동안 갈등의 연속이었다.

용주사의 경우 중진 비상대책위원회가 현 주지 성월 스님의 금권선거, 은처 등 범계 의혹을 제기했다. 8월 31일 용주사 일주문 앞에서 집행부 측과 중진 비상대책위원회가 몸싸움을 벌이는 사태까지 일어났다. 전경문도회도 용주사 집행부 측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결국 조계종 총무원은 중앙총회에 용주사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고, 중앙총회는 이를 받아들였다.

동국대는 이사장 일면 스님의 흥국사 범계 의혹은 세간과 출세간을 거쳐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일면 스님은 무고를 주장하며,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기사화한 일부 언론사들 고소하기도 했으나 사태는 진정되지 않았다. 김건중 동국대 부총학생

회장이 10월 15일부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고, 12월 3일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에 옮겨져서 전까지 50일을 단식했다. 결국 김부총학생회장의 단식으로 동국대 이사회는 조건부로 이사 전원 사퇴를 결의했다.

조계종 재심회계원의 6월 18일 서의현 전 총무원장 재심 결정도 큰 파문을 가져왔다. 재심회계원은 제96차 심판부를 열고

조계종 잇단 범계 의혹에 곤혹 서의현 재심 판결 대중공분도 대중공사 통한 소통 계기 마련 법인법 놓고 선학원 갈등 첨예 태고종 사태 해결은 '오리무궁'

의현 스님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이전 판결을 뒤집고 공권정지 3년을 결정했다.

파문은 컸다. 1994년 개혁 주체 세력 중 하나인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등 불교계 시민사회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을 발표하고 "94년 개혁 정신의 퇴행"이라고 재심 판결을 비판했다.

총무원장 자승·교육원장 현웅·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7월 2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의현 스님 재심 판결 논란이 종식될 때까지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을 분명했다. 결국 의현 스님 사안은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의 의제로까지 상정됐고, 재심회계위원 전원 사퇴 권고와 '종단화합과 개혁을 위한 사부대중위원회'가 구성됐다.

의현 스님 재심 판결 논란에서 큰 역할을 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는 올해 조계종이 보여준 성과다. 1월 28일 처음 시작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는 불교계 토론 문화와 종단 내부 소통에 큰 기여를 했다. 종단 현실과 미래를 참가 위원에게 듣는 것으로 시작한 100인 대중공사는 11월 25일 까지 8개의 의제를 다뤘다.

조계종은 내년에는 대중공사 '시즌2'를 계획 중에 있다. 현재 분기별 추진과 장기 의제를 논의하는 구조를 만드는 등 토론 방식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중 공의를 모아가는 이 같은 시스템이 전국 교구분사·지역별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법인관리법을 두고 빚어진 선학원과 조계종의 갈등은 현재까지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조계종은 선학원 정상화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협상·제안과 소송'이라

는 두 트랙 전략을 보였지만, 가시적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도리어 11월 17일 발표한 '선학원 소속 분원의 창건주, 분원장 및 관련 도제에 대한 권리제한 해제'는 법인관리법의 근간을 뒤흔들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2014년부터 시작된 태고종의 내용은 지금까지도 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 태고종 종단비상대책위원회는 1월 23일 태고종 총무원을 강제 점거하면서 문제는 불거진다. 이후 총무원장 도산 스님과 집행부, 청년회원 등 30여명은 2월 11일 새벽 2시경 비대위가 점거 중인 청사에 재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폭력 사태가 이뤄졌고 양측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이로 인해 11월 3일에는 집행부와 비대위의 주장 모두 서울구치소 구속 수감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종정 혜초 스님이 유시를 내리고 종회가 개원해 사태 수습에 나서 향후 상황이 예의 주시된다.

하지만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내용으로 인해 태고종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의 회비와 사업비를 납부하지 않아 회원 자격이 내년 6월까지 정지됐으며, 복귀하더라도 예전과 같은 위상으로 활동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태고종 14대 개원종회... 내용은 여전

설운 스님 의장 선출 등 안건 처리, 내년 예산 총 61억 7천여만원

태고종단 정상화와 화합을 위한 제14대 개원종회가 열리면서 집행부 구성이 이뤄져 중무행정 정상화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태고종은 12월 15일 서울 사간동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대회의실에서 '제14대 개원종회 및 제123회 정기중앙총회'를 개최했다. 개원종회에는 재적의원 49명 중 40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설운 스님을 의장으로 선출했다. 설운 스님은 40표 중 24표를 얻어 재적의원 49명 과반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출석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의장에 당선됐다. 수석부의장은 법담 스님, 차석부의장은 시각 스님이 선출됐다.

의장단 선출 이후 중앙총회는 안건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또한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총 61억7339만7000원으로 확정했다.

하지만 개원종회에도 불구하고 종단 내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종정 혜초 스님의 유시를 통해 종단사태 수습의 전권을 부여 받은 인곡 스님과 현 집행부가 종단 운영의 정당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윤호섭 기자



태고종은 12월 15일 서울 사간동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대회의실에서 '제14대 개원종회 및 제123회 정기중앙총회'를 개최했다. 개원종회에는 재적의원 49명 중 40명이 참석했다.

"노동현안 해결 '사회적 기구'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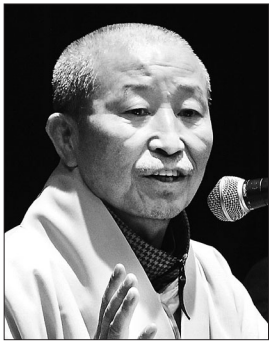
조계종 화쟁위, 한상균 위원장 관련 기자회견

"사회를 '운동 경기장'이라고 표현한다면 현재 이 경기장에는 운동 규칙도 없고, 선수들도 규칙을 지킬 마음이 없다고 보입니다. 더군다나 이를 중재할 주심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기서 바로 종교의 사회적 역할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상균 민주노동당 위원장의 조계사 은신 사태서 중재 역할을 도맡았던 조계종 화쟁위원회 도법 스님(사진)은 종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노동관련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을 지속할 것을 다짐했다.

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법, 이하 화쟁위)는 12월 11일 서울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한 위원장의 24일 조계사 은신 사태 관련 화쟁위 중재 역할과 과제를 논한 이 자리에는 도법 스님과 화쟁위원 정웅기, 박병기 교수가 함께했다.

이날 화쟁위는 정부·여당과 노동계가 갈등을 빚고 있는 노동관련법 문제를 해결을 위해 '사회적 대화기구'를 창설할 것을 제안했다. 도법 스님은 "노동현안에 대한 시비(是非)는 미래세대를 위한 문제"라



면서 "양자 모두를 100퍼센트 만족시킬 수 있는 해답은 없다. 국민적 지혜를 모아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당사자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마당을 제안한다. 1차적으로 종교계가 깊은 논의를 갖고, 대화기구 마련을 위한 초석을 다질 것"이라 다짐했다.

이울러 도법 스님은 "경찰 측과 노동계가 모두 서로의 입장이 너무 견고했기 때문에 실효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 실력과 역량의 한계에 부딪힐 때도 있었다"면서 "모두 '평화'를 원하는 마음은 같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평화롭게 잘 마무리됐다"고 자평했다.

박아름 기자

종단 사찰, 스님, 전국 불자를 위한 법률상담

불교조계종 종단법률고문 법무법인(유한) 바른

사찰소송

형사소송

민사소송

가사소송

세무관계



김영규 구성원 변호사

학력 1982 진주고등학교 졸업
198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9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법학석사, 헌법전공)
1992 제 34회 사법시험 합격
1995 제 24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수료(헌법전공)
2009 중국 북경 정법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국제통상법 전공)

경력 1995-1999 창원지방법원 판사
1999-2002 인천지방법원 판사
2002 중국 청화대학교 대학원 교수
200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0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2008 법무법인 한승 구성원변호사, 중국 상해대표처 대표
2009-2010 법무법인 추정, 법무법인 지평지심 구성원 변호사
2010-2012 법률사무소 행복세상 구성원 변호사
2013-현재 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

법원 박일환 전 대법관
박재윤 전 대법관
김동건 전 서울고등법원장
강병성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영애 전 춘천지방법원장, 18대 국회의원

검찰 정동기 전 대검 차장
문성우 전 대검 차장
이인규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